

예술작품으로 승화된 아름답고 견고한 '책치레'

예술제본가 백순덕씨의 <앞장과 뒷장전>

예술제본가 백순덕씨(39)가 첫 전시회를 열었다. 지난 5일부터 12일까지 서울 강남 아티그램에서 <앞장과 뒷장(Recto-verso) 전>이라는 제목으로 열린 이번 전시회에서 그동안 제작한 작품 250점을 선보였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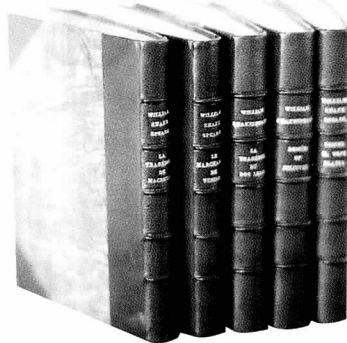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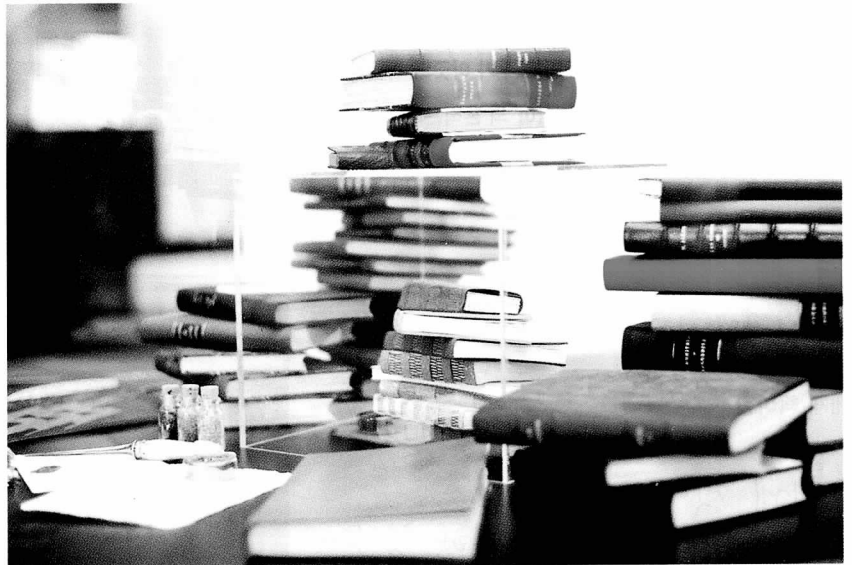
예술제본·장정이란 인쇄된 책이나 각종 기록물을 엮는 과정 전반에 걸쳐 견고하고 아름다운 '책치레'를 하는 작업을 가리킨다. 일반 종이는 물론 가죽, 판지, 마블지, 전통 한지 등 40~50여가지 재료를 이용해 책을 하나의 예술작품으로 만들어내 보존성과 미감을 극대화하는 작업이다.

그는 이번 전시회에서 직접 제작한 책과 프랑스에서 예술제본으로 만들어진 문학서, 필사본, 성서 등의 작품을 소개했다.



백순덕씨

최윤의 소설집 <저기 소리 없이 한 점 꽃잎이 지고>의 프랑스어판, 김언호의 <책의 탄생>(한길사), <정현종 시전집(전2권)>(문학과지성사) 등 국내 저서를 예술제본한 작품도 선보였다. — 김장근 기자



예술제본으로 다시 태어난 책들(위).

책머리를 사포로 곱게 갈아낸 다음 금분을 입혀 전통방식으로 제본한 1928년 출간 영·프랑스어판 <세익스피어 전집>(왼쪽).

염소가죽과 마블지를 이용한 프랑스어판 신·구약 <성경>, 송아지 가죽을 이용하고 아마실로 꿰맨 교차된 구조의 작은 <성경>, 버팔로 가죽과 아마실을 이용한 찬송가(아래 왼쪽).

예술제본에 쓰이는 도구들(아래 오른쪽).



해와 달 뜨고 켄타우로스 뛰노는 우리 시대의 장서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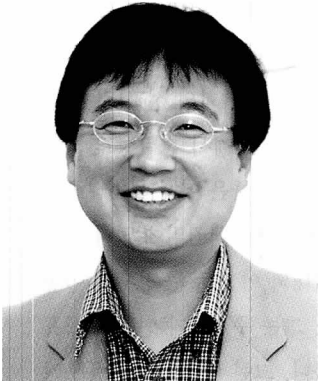
판화가 남궁산씨의 <남궁산 목판화 장서표전>

판화가 남궁산씨(41)가 5월1일부터 10일까지 서울 인사동 동산방화랑에서 <남궁산 목판화 장서표(藏書票)전>을 열었다. 장서표란 말 그대로 책의 표지나 뒷면에 책 주인을 표시하기 위해 붙이는 표지(標識)로, 문자와 그림이 결합돼 실용성과 아름다움을 동시에 갖춘 판화의 한 장르로 자리잡았다. 사라져버린 전통을 되살리면서 판화의 대중성을 도모하기 위해 남궁산씨는 지난 10여년 동안 꾸준히 장서표를 제작해왔다. 이번 장서표 목판화전에는 104명을 표주로 내세운 작품들을 선보였다.

가수부부 정태춘-박은옥의 장서표는, 펼쳐진 책 왼쪽 면에 태양이 빛나고, 마주보는 면에는 달이 떠 있다. 소설가이자 신화연구가인 이윤기씨의 장서표에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

반인반수의 켄타우로스가 책에 박혀 있다. 소설가 박완서씨는 푸른 잎새를 배경으로 피어난 은방울꽃으로, 안도현 시인은 암각화에 서 따온 임신한 고래 그림으로 표현됐다.

—김장근 기자



남궁산씨



소설가이자 신화연구가 이윤기의 장서표(위).
시인 황지우의 장서표(오른쪽).
문학평론가 도정일의 장서표(아래 왼쪽).
여행기 한비아의 장서표(아래 가운데).
《한겨레》문학전문기자 최재봉의 장서표(아래 오른쪽).

